

< 전지적 유샘 시점 > - 거시독해와 미시독해는 이렇게 !



국어 영역

반사 'ㅁ'(ㄷ)은 일단 변표부터!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어린 말은 망아지, 어린 소는 송아지, 어린 개는 강아지라고 한다. 이들은 모두 사람들이 친숙하게 기르는 가축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새끼를 나타내는 단어가 모두 '-아지'로 끝난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런데 돼지도 흔한 가축인데, 현대 국어에서 <어린 돼지를 가리키는 고유어 단어는 따로 없다> '가축과 그 새끼'를 나타내는 고유어 어휘 체계에서 '어린 돼지'의 자리는 빈자리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 돼지를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린 돼지를 가리키는 고유어 단어가 없을 뿐인데, 이러한 한 언어의 어휘 체계 내에서 개념은 존재하지만 실제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어휘적 빈자리**라고 한다.

2. 어휘적 빈자리는 계속 존재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채워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휘적 빈자리가 채워지는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방식은 단어가 아닌 구를 만들어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이다. 어떤 언어에는 '사촌, 고종사촌, 이종사촌'에 해당하는 각각의 단어는 존재하지만, 외사촌을 지시하는 단어는 없다. 그래서 그 언어에서 외사촌을 지시할 때에는 '외삼촌의 자식'이라고 말한다고 한다. 현대 국어에서 어린 돼지를 가리킬 때 '아기 돼지, 새끼 돼지' 등으로 말하는 것도 이러한 방식에 해당된다.

3. 두 번째 방식은 한자어나 외래어를 이용하여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이다. 무지개의 색채를 나타내는 현대 국어의 어휘 체계는 '빨강-주황-노랑-초록-파랑...'인데(이 중 '빨강, 노랑, 파랑'은 고유어이지만 '빨강과 노랑의 중간색', '푸른 빛을 약간 띤 녹색' 등을 나타내는 고유어는 없기 때문에) 한자어 '주황(朱黃)'과 '초록(草綠)' 등이 쓰이고 있다.

4. 세 번째 방식은 상의어로 하의어의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이다. '누이'는 원래 손위와 손아래를 모두 가리키는 단어인데, 손위를 의미하는 '누나'라는 단어는 따로 있으니(손아래)만을 의미하는 단어는 없어서 상의어인 '누이'가 그대로 빈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의미 구별을 위해 손아래를 의미하는 '누이동생'이 생겨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누이'는 상의어로도 쓰이고, 하의어로도 쓰인다.

공통점 => 대사의 차이점 <=> 개념 제시 <=> 개념 구체화 <=> (생각 자극) <=> 핵심 개념 명명

개념 1, 2, 3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지금의 '돼지'를 의미하는 말이 예전에는 '돌'이었고, '돌'에 '-아지'가 붙어 '돌의 새끼'를 의미하는 '도야지'가 쓰였다. 그런데 현대 국어의 표준어에서는 '돌'이 사라지고, '돌'의 자리를 <도야지의 형태가 바뀐 돼지>가 차지하게 되었다.

- ① '예전'의 '도야지'에 해당하는 개념이 지금은 사라졌다.
- ② '예전'의 '돌'은 '도야지'의 하의어로, 의미가 더 한정적이다.
- ③ 지금의 '돼지'와 '예전'의 '도야지'가 나타내는 개념은 다르다.
- ④ 지금의 '어린 돼지'에 해당하는 어휘적 빈자리는 '예전'부터 있었다.
- ⑤ '예전'의 '도야지'의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지금은 하나의 고유어 단어가 사용된다.

'도야지'가 예전의 '돌'의 하의어 <=> 예전의 '돌' <=> '도야지'가 있었는듯 <=> 현대 국어에서 '돼지'로 굳어짐 <=> '도야지'가 사라짐 <=> '도야지'가 있었는듯 <=> '도야지'가 사라짐 <=> '도야지'가 있었는듯 <=> '도야지'가 사라짐

작은 '아기 돼지', '새끼 돼지' 등으로 사용 <=> 예전에는 '돌의 새끼' 의미!

12. 윗글의 어휘적 빈자리가 채워지는 방식이 적용된 사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학생 1은 할머니 휴대 전화에 번호를 저장해 드리면서 할머니의 첫 번째, 네 번째 사위는 각각 '만사위', '막냇사위'라고 입력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사위를 구별하여 가리키는 단어가 없어 '둘째 사위', '셋째 사위'라고 입력하였다.
ㄴ. 학생 2는 '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 뽕의 하의어로 수평에 해당하는 '장끼'와 암뽕에 해당하는 '까투리'는 알고 있었지만, 뽕의 새끼를 나타내는 단어를 몰라 국어사전에서 고유어 '꺼병이'를 찾아 사용하였다.
ㄷ. 학생 3은 태양계의 행성을 가리키는 어휘 체계인 '수성-금성-지구-화성...'을 조사하면서 '금성'의 고유어로 '셋별'과 '개밥바라기'가 있음을 알았는데, '개밥바라기'라는 단어는 생소하여 '셋별'만을 기록하였다.

개념 1

- ㉠ ㄱ
- ㉡ ㄱ, ㄴ
- ㉢ ㄱ, ㄷ
- ㉣ ㄴ, ㄷ
- ㉤ ㄱ, ㄴ, ㄷ

13.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중세 국어에서는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 종결 어미나 보조사가 달리 쓰인다. 예를 들면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여 서술어가 될 때 **판정 의문문**에서는 종결 어미 '-너', **설명 의문문**에서는 종결 어미 '-뇨'가 쓰인다. 반면, 체언에 보조사가 결합하여 서술어가 될 때 **판정 의문문**에서는 보조사 '가', **설명 의문문**에서는 보조사 '고'가 쓰인다. 그런데 주어가 2인칭일 때에는 의문문의 종류와 관계없이 종결 어미 '-니다'가 쓰인다. 중세 국어 의문문의 예는 아래와 같다.

㉠, ㉡, ㉢

- 이 일후미 (㉠) : 의문사 O => 설명의문문 '무엇인가?' '무엇' (체언) + 반조사이므로, 반조사 '고' 사용!
- 네 엇대 아니 (㉡) : 의문사 O => 설명의문문 '네가 어찌 안 가는가?' (but, 주어 '네'가 2인칭이므로, 종결어미)
- 그되는 보디 (㉢) : 의문사 X => 판정의문문 '그대는 보지 않는가?' '니다' 사용 <=> (")

- ㉠ ㅁ스고 가느뇨 아니 흐는다
- ㉡ ㅁ스고 가는다 아니 흐는다
- ㉢ ㅁ스고 가느뇨 아니 흐느너
- ㉣ ㅁ스가 가는다 아니 흐는다
- ㉤ ㅁ스가 가느뇨 아니 흐느너

국어 영역

14.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풀잎[풀립] ㉡ 읊네[음네] ㉢ 벼훅이[벼훅치]

- ① ㉠, ㉡에서는 음운 변동이 각각 세 번씩 일어났군. ○ ○ ⇒
 ② ㉠, ㉡에서는 인접한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 유음라, ㉡ 비음라
 ③ ㉠에서 첨가된 음운과 ㉡에서 탈락된 음운은 서로 다르군.
 ④ ㉠, ㉡에서는 음운 개수가 달라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⑤ ㉠은 '리'로 인해, ㉡은 모음 'ㅣ'로 인해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유음라 구개음라

15.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끼리 묶인 것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의 설명]
여러분, '쓰이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선 '쓰이다'는 피동사이기도 하고 사동사이기도 하므로 이를 구별해야겠죠? 또한 '쓰다'는 동음이의어나 다의어이므로 그 의미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단어를 이해할 때,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해야 해요. 그럼 이와 관련된 학습 활동을 해 볼까요?

[학습 활동]
다음은 국어사전의 일부이다. 제시된 단어의 의미에 유의하여 각각의 피동사와 사동사가 포함된 예를 들어 보자.

갈다 ¹ ㉠ […을 …으로] ②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다.
깎다 ㉡ ① […을] ③ 값이나 금액을 낮추어서 줄이다.
묻다 ¹ ㉠ […에] ① 가루, 풀, 물 따위가 그보다 큰 다른 물체에 들러붙거나 흔적이 남게 되다.
묻다 ² ㉠ […을] ②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끼운 상태로 상처가 날 만큼 세게 누르다.
쓸다 ² ㉠ […을] ① 비로 쓰레기 따위를 밀어내거나 한데 모아서 버리다.

피동문	사동문
㉠	㉡

- <의미> <피동·사동>
- ① [㉠: 학생회 임원이 새 친구로 갈렸다. ○ 피동 ○
 ㉡: 삼촌이 형에게 그 텃밭을 갈렸다. × 사동 ○]
 ② [㉠: 용돈이 이달에 만 원이나 깎였다. ○ 피동 ○
 ㉡: 나는 저번 실수로 점수를 깎였다. ○ 피동 ×]
 ③ [㉠: 내 친구는 가래떡에 꿀만 묻혔다. ○ 사동 ×
 ㉡: 누나는 붓에 먹물을 듬뿍 묻혔다. ○ 사동 ○]
 ④ [㉠: 아빠가 아이 입에 사탕을 물렸다. ○ 사동 ×
 ㉡: 큰형이 동네 개에게 발을 물렸다. ○ 피동 ×]
 ⑤ [㉠: 큰 마당의 눈이 빗자루에 쓸렸다. ○ 피동 ○
 ㉡: 내 동생에게 거실 바닥만 쓸렸다. ○ 사동 ○]

